

# 일본의 파프리카 수입구조 및 소비자 구매행태\*

박기환

## 1. 일본의 파프리카 생산 및 수입 동향

### 생산연망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최근 증가추세이지만,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산 파프리카 수입이 많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서양식 외식산업의 발달과 함께 1993년 네덜란드로부터 파프리카가 수입되면서 본격적인 파프리카 소비가 시작되었다.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1998년 23ha에서 2002년 19ha로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 증가하여 2008년에는 61ha를 나타내고 있다.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한국과 네덜란드, 뉴질랜드산 파프리카 수입이 많아 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표 1 일본의 파프리카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 분	단위: ha, 톤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재배면적	23	21	19	44	56	61
생 산 량	1,368	766	1,046	2,195	2,323	3,057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야채생산상황표식조사(野菜生産状況表式調査), 각 연도.

\* 본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연구위원이 문헌조사와 일본 출장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kihwan@krei.re.kr, 02-3299-4331).

파프리카 생산량은 2008년 3,057톤으로 1998년에 비해 2.2배 증가하였으며, 주요 생산지역은 쿠마모토(熊本), 이바라키(茨城), 나가노(長野), 미야기(宮城), 야마카타(山形) 등이다.

## 수입실적 및 국별 비중

일본은 채소 가공품 수입 중심 구조이며, 신선채소의 수입실적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신선채소는 2000년대 초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의 수입이 많았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양파, 고추·피망, 파프리카로 중심 품목이 변화되었다. 파프리카는 2000년 전체 채소 수입액의 4.5%에서 2010년 12.3%로 7.8%p 상승하였다. 주요 수입국 비중(10년)은 한국 64.0%, 네덜란드 21.3%, 뉴질랜드 14.7%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수입액이 매년 증가하여 비중이 2005년에는 10.1%, 2010년은 12.3%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전체 채소 수입액 중 파프리카 수입액은 12.3%이며, 주요 수입국 비중은 한국 64.0%, 네덜란드 21.3%, 뉴질랜드 14.7%이다.

표 2 일본의 채소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백만 엔,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01,841 (100.0)	95,549 (100.0)	96,400 (100.0)	77,726 (100.0)	61,087 (100.0)	58,235 (100.0)	76,670 (100.0)
양 파	7,748 (7.6)	11,025 (11.5)	12,785 (13.3)	9,102 (11.7)	6,369 (10.4)	7,877 (13.5)	14,406 (18.8)
브로콜리	12,775 (12.5)	9,180 (9.6)	8,622 (8.9)	7,469 (9.6)	5,624 (9.2)	4,807 (8.3)	6,026 (7.9)
아스파라거스	11,330 (11.1)	8,729 (9.1)	8,346 (8.7)	7,613 (9.8)	6,329 (10.4)	5,985 (10.3)	6,563 (8.6)
호 박	8,181 (8.0)	8,600 (9.0)	8,752 (9.1)	8,132 (10.5)	8,023 (13.1)	6,895 (11.8)	8,329 (10.9)
고추·피망	6,940 (6.8)	10,093 (10.6)	10,300 (10.7)	10,295 (13.2)	8,647 (14.2)	8,321 (14.3)	9,722 (12.7)
파프리카	4,581 (4.5)	9,691 (10.1)	10,041 (10.4)	10,122 (13.0)	8,441 (13.8)	8,111 (13.9)	9,442 (12.3)

주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이며, 신선냉장 실적임.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의 일본 수입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파프리카 수입 중 네덜란드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과 뉴질랜드가 양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국내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증가로 대일본 수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수입 비중이 2010년 64.0%로 가장 높아 우리나라가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한 반면, 네덜란드산의 수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표 3 일본의 국별 파프리카 수입 실적

단위: 톤,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0,326 (100.0)	25,914 (100.0)	22,803 (100.0)	21,811 (100.0)	22,424 (100.0)	24,812 (100.0)	25,411 (100.0)
한 국	2,023 (19.6)	17,764 (68.6)	14,570 (63.9)	14,447 (66.2)	16,958 (75.6)	17,865 (72.0)	16,252 (64.0)
뉴질랜드	1,990 (19.3)	3,061 (11.8)	3,426 (15.0)	3,738 (17.1)	3,182 (14.2)	3,385 (13.6)	3,727 (14.7)
네덜란드	6,192 (60.0)	5,087 (19.6)	4,804 (21.1)	3,625 (16.6)	2,283 (10.2)	3,562 (14.4)	5,416 (21.3)

주: ( ) 내는 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월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봄철에는 한국산의 비중이 높은 반면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수입량은 많지 않으며,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고품질의 네덜란드 파프리카의 수입비중이 높다. 연말·연초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는 일본과 기후가 반대인 뉴질랜드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실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최대 파프리카 수입국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별로는 수입국 패턴이 상이하며, 이러한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다란 변동이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3~7월은 타 국가보다 한국의 수출업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12~2월에는 고품질의 뉴질랜드산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본의 파프리카 월별국별 수입구조

단위: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0 ~ 2004	한 국	5.2	7.2	8.0	11.9	16.3	11.7	11.5	2.6	1.9	1.9	8.5	13.4
	뉴질랜드	15.2	14.7	15.4	9.7	5.6	0.0	0.2	0.3	2.8	9.0	13.9	13.2
	네덜란드	0.1	0.1	0.5	2.4	2.9	7.7	15.5	25.6	22.9	16.0	6.1	0.3
2005 ~ 2009	한 국	4.9	5.5	7.4	9.6	12.7	13.1	12.9	5.6	3.5	5.0	8.1	11.7
	뉴질랜드	16.2	17.1	14.7	12.5	3.9	0.2	0.0	0.0	2.0	8.7	12.5	12.1
	네덜란드	0.0	0.1	0.7	2.7	4.6	9.4	10.3	26.0	28.4	14.5	3.3	0.1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2.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의 경쟁력 및 평가

### 가격경쟁력

일본시장에서 파프리카의 국별 수입단가는 한국산이 2010년 kg당 328엔, 뉴질랜드산 474엔, 네덜란드산은 432엔으로 한국산이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69~76% 수준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파프리카의 가격경쟁력은 높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산이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74~88% 수준이었으나, 점차 그 격차가 확대되어 최근에는 70% 내외로 하락하였다. 이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켰다기보다는 한국 내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출업체 간 과당 경쟁 등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 거래가격은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70~80%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은 높다.

표 5 일본의 국별 파프리카 수입단가

		단위: 엔/kg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 국(A)	385	335	372	402	337	291	328	
뉴질랜드(B)	517	461	549	587	453	430	474	
네덜란드(C)	438	457	569	586	563	407	432	
A/B(%)	74.4	72.8	67.9	68.5	74.3	67.8	69.2	
A/C(%)	87.8	73.3	65.5	68.6	59.8	71.5	75.9	

주: 수입단가는 수입금액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동경도중앙도매시장 내 오타시장에서의 국별 파프리카 도매가격도 한국산은 kg당 400엔대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산과 네덜란드산은 500~600엔으로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의 가격경쟁력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6 일본 오타시장의 국별 파프리카 도매가격

		단위: 엔/kg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 국(A)	433	442	431	469	522	422	411	445	
뉴질랜드(B)	667	630	549	678	682	681	517	628	
네덜란드(C)	650	556	556	692	730	548	551	549	
A/B(%)	64.9	70.2	78.5	69.2	76.5	62.0	79.5	70.9	
A/C(%)	66.6	79.5	77.5	67.8	71.5	77.0	74.6	81.1	

자료: 일본 동경도중앙도매시장.

## 시장에서의 평가

한국산 파프리카는 품질 향상과 지리적 위치로 일본시장에서 선호되고 있으나,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에 비해서는 품질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가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산은 수출 초기에 비해 재배기술 향상으로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장점과 편의성 등으로 수입 바이어와 취급상들이 한국산 수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거나 가격이 낮을 때에 형상이나 색택 등이 불량한 상품이 수입되는 경향이 있어 한국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산 파프리카는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에 대한 이미지도 양호하다. 날개 포장을 하여 냉장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우수하고, 손상된 상품이 거의 없으나, 원거리로 인해 항공으로 운송하고 있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이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뉴질랜드산 파프리카는 네덜란드의 기술과 품종을 들여와 재배하고 있어 네덜란드산과 품질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계절적으로 일본과 반대이기 때문에 일본 내 파프리카 생산이 적은 시기에 고품질의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어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 3. 일본 소비자의 파프리카 구매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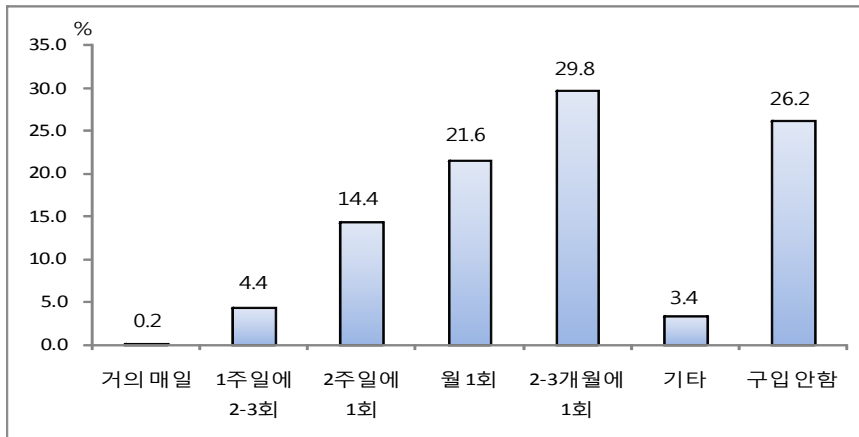
일본의 파프리카 1인당 소비량은 200g으로 우리나라의 323g에 비해 38.1%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본의 전문 리서치회사인 Cross Marketing Inc.(クロス・マーケティング)의 전국 소비자패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구매행태를 파악하였다.

### 구매주기 및 선호 포장형태

일본 소비자 가운데 파프리카를 구입하지 않은 비중은 26.2%이며, 구매주기는 ‘2~3개월에 1회’가 29.8%, ‘월 1회’는 21.6%, ‘2주일에 1회’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소비자의 파프리카 선호 포장형태는 ‘소포장(13.0%)’보다는 ‘1개씩 구매가 가능하도록 쌓아둔 형태(87.0%)’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벌크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는 파프리카 구입 시 ‘1개(45.8%)’, 혹은 ‘2개(42.3%)’를 사는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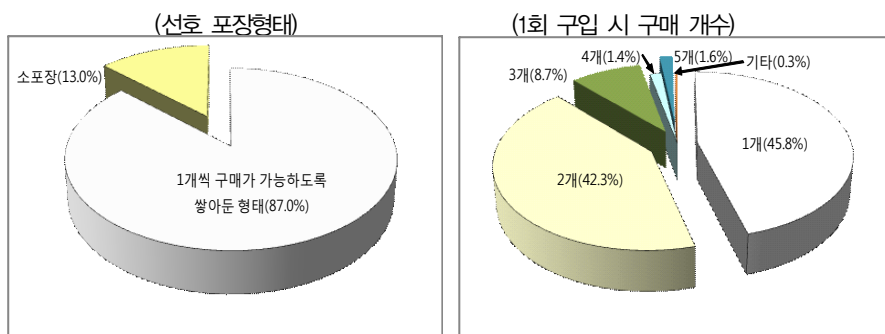
일본 소비자의 파프리카 선호 포장형태는 ‘벌크 형태’이며, 1회 구입 시 1~2개 정도 구매한다.

그림 1 일본 소비자의 파프리카 구입 빈도



자료: 일본 소비자 조사결과.

그림 2 일본 소비자의 파프리카 선호 포장형태 및 구입 수



자료: 일본 소비자 조사결과.

## 구입 장소 및 선호 색상

일본 소비자의 파프리카 구입 장소는 '슈퍼'가 94.3%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일부 '백화점'이나 '생산자로부터 직접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일본 소비자의 파프리카 구입 장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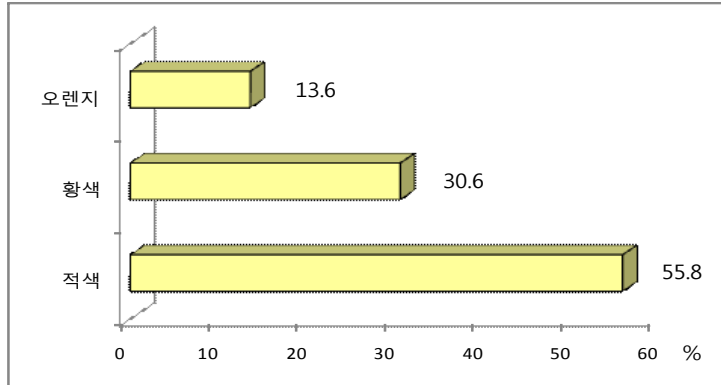
구분	백화점	슈퍼	생산자로부터 직접구입	인터넷, 통신판매	기타	계
구성비	1.4	94.3	1.4	0.3	2.7	100.0

자료: 일본 소비자 조사결과.

파프리카는 주로 '슈퍼'에서 구입하며, '적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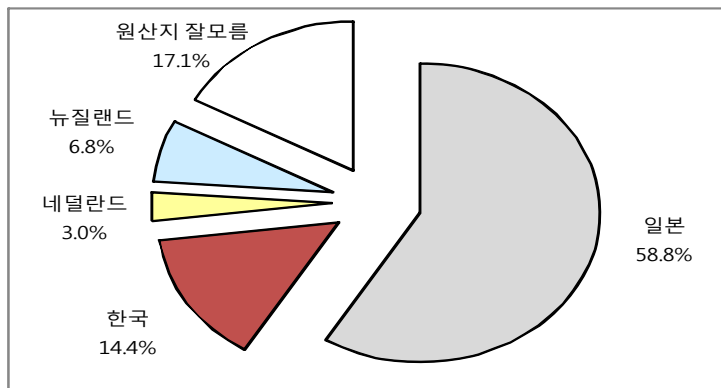
일본 소비자는 ‘적색’의 파프리카를 가장 선호(55.8%)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황색(30.6%)’, ‘오렌지색(13.6%)’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입하고 있는 파프리카의 원산지는 일본산이 58.8%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산이 1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고 구입하는 소비자도 상당수(17.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일본 소비자의 파프리카 선호 색상



자료: 일본 소비자 조사결과.

그림 4 일본 소비자의 구입 파프리카 원산지



자료: 일본 소비자 조사결과.

한편, 한국산 파프리카를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14.4%이지만, 한국산 파프리카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비중은 35.5%로 나타났다. 한국산 파프리카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맛, 신선도, 안전성, 색의 선명도를 일본산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대체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8 일본 소비자의 한국 파프리카 평가(일본산 대비)

구 분	단위: %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맛	0.8	2.3	61.8	32.8	2.3
신선도	0.8	6.9	67.9	22.9	1.5
안전성	1.5	8.4	75.6	13.7	0.8
색의 선명도	0.8	1.5	58.0	34.4	5.3

자료: 일본 소비자 조사결과.

## 4. 시사점

우리나라의 파프리카는 일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농가의 경영효율성 향상이나 물류비 절감 노력 등의 결과가 아닌 정부의 각종 지원과 국내 수출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적정 가격 이하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세한 수출업체의 탈락을 유도하여 과당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파프리카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반면, 품질이 높지 않은 중저가로 통용되고 있어 수출농가의 재배기술 향상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일본 소비자가 파프리카를 구입하는 장소는 대부분 슈퍼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구매처와의 직거래가 필요하다. 개별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슈퍼나 홈센터 등과의 직거래를 통해 수출할 경우 거래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파프리카는 소포장 형태보다는 1개씩 구입이 가능한 벌크형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슈퍼와 직거래 시 대형 박스에 파프리카를 선적해 수출함으로써 포장비에 대한 물류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시장에서 경쟁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일본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파프리카를 수출해야 한다. 즉, 지속적인 소비자 조사를 기초로 소득별·연령별·학력 수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속성의 파프리카 상품을 수출하는 맞춤형 전략이 중요하다.

파프리카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업체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재배기술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적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장 특성별 맞춤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野菜生産状況表式調査, 각 연도.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일본 동경도중앙도매시장.